지역 소식통

### 정읍시, 귀농 · 귀촌인 맞춤형 기초영농기술교육

정읍시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13일 '2026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의 막을 올리고 초보 농업인들의 든든한 영농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정읍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과 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오는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강의실과 실습 교육장에서 총 10회, 4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이론과 현장 실습을 병행해 농업에 대한 기초 지식과 실제적인 영농 기술을 전수한다.

교육 과정은 귀농·귀촌 현황과 각종 지원 정책 안내를 비롯해 작목별 재배 기술, 농업 회계 및 관련 법률, 농기계 실습 등 초기 정착에 반드시 필요한 실용적인 과목들로 알차게 꾸려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부안 배경 영상 제작 인센티브 지원 추진

부안군은 영화와 드라마 등 우수 영상 콘텐츠 유치를 통해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부안 배경 영상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안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영상물 제작사에 지역 내 소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투자와 편성이 확정된 순제작비 10억원 이상의 장편 영화 및 드라마이며 부안 관내에서 3회차 이상 촬영한 작품으로 부안임이 특정 가능한 장소가 1회 이상 필수로 노출돼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작품당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이며 부안 관내에서 사용한 로케이션 직접 관련 소비 인정 금액의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청년이 머무는 고창 만든다'

## 대산면 '서점마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청년 유입 · 정착 기반 마련
## 향후 3년간 총 6억원 국비 지원… 지역자원 · 청년 아이디어 결합한 사업 추진

고창군 대산면 '서점마을'이 행정안전부 주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지역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사업은 전국 10개소를 선정하는 공모사업으로, 고창군은 향후 3년간 총 6억원(연 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서점마을'은 청년단체 B비책기지(대표 이지연)를 중심으로 작은불연구소, 키후위키, 두루거리창작소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며, 다양한 지역자원과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외지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중심의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정착으로 이어지게 하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단순 방문이 아닌 일정 기간 머물며 지역을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지역 특산물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실험과 창업 프로그램으로 청년의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활동거점 조성, 청년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병행하여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고창군은 이번 청년마을 사업을 단순한 공모사업을 넘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앵커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정책의 실행 거점이자 참여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연계하여, 향후 청년복합공간 조성과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갈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이학수 정읍시장, 현장에서 직접 답 찾는다

## 농촌유학 · 농기계 현장 점검… 시민 체감형 현장행정 이어가

정읍시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장을 직접 살피는 '밀착 현장 행정'에 발 벗고 나서며 정책 완성도와 시민 체감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고 이를 즉각적인 실행으로 연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13일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과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먼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찾은 이 시장은 공정 진행 상황을 살피며 준공 이후 실제 이용자들의 편의까지 고려한 마무리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조성지 뒷부분의 경사면(법면) 정비와 토사 유실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조경용 나무 식재 시 시설물과 충분한 거리를 두는 등 안전과 유지관리까지 폭넓게 고려한 세심한 시공을 주문했다.

이어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장비의 작동 상태와 안전 관리 실태, 임대 절차, 이용자 작업 동선 등 운영 상황 전반을 살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만큼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같은 기종을 중복으로 임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관왕

## 황토배기멜론 · 청보리밭축제 수상… 지역 대표 브랜드 위상 확인

고창군이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 황토배기멜론'과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나란히 대상을 수상하며, 지역 대표 브랜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닷컴, iMBC, 한경닷컴이 공동 주최하고, 소비자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종합해 분야별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고창군은 멜론 과 생태관광 부문에서 동시에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고창 황토배기 멜론'은 7년 연속 대상 수상하며 프리미엄 과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창 멜론은 황토 토양과 해풍, 일교차가 큰 기후 등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재배되어 높은 당도와 부드러운 식감으로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생태관광 부문 5년 연속 대상 수상의 쾌거를 이루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봄 축제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약 20만 평의 청보리밭과 유채꽃이 어우러진 경관을 바탕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오는 4월18일부터 5월10일까지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3회 청보리밭축제는 유네스코 7가지 보물찾기, 보리밭 사잇길 걷기, 먹거리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황새 전문가 초청 주민 교육 성료

부안군은 천연기념물 제199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의 보전과 생태적 가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황새 전문가 초청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송전탑에 둥지를 틀었던 황새 가족을 안전하게 인공 둥지탑으로 옮긴 사례와 연계해 주민들에게 황새와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알리고 황새 보전 활동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지난 13일 오후 1시 부안읍 금추마을 경로당에서 예산황새공원 김수경 박사와 전북대학교 유칠선 박사가 강사로 나서 주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어린이집 운영비 인상… 물가 상승 · 원아 감소 부담 경감

## 고품질 보육 환경 조성 박차

정읍시가 물가 상승과 원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액을 일괄 상향하며 고품질 보육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그동안 감염병 예방 등을 목적으로 연 1회 지급해 왔던 '방역비'를 올해부터 '정읍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 이는 단순히 방역과 소독에 국한됐던 지원금의 용도를 어린이집 운영 전반으로 확대해 각 시설이 처한 상황에 맞춰 예산을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규모의 확대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연간 30만원에서 6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지원액을 상향한다. 모든 구간에서 50만원씩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결정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와 가파른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보육 현장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다.

시는 이번 운영비 인상이 어린이집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영유아들에게 한층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교육지원청-지자체, 재산 관리 체계 구축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이 관내 폐교 자산인 (구)선동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지역 축제를 지원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고창교육지원청은 오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리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선동초등학교(고창군 공음면 청보리로 1010) 운동장을 공공주차장으로 개방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고창교육행정실무협의회' 안건 채택에 따른 협력의 일환으로, 지난 3월 고창군과 무상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형버스 5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지원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고창군청이 운영·관리를 전담해 상생 협업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폐교 재산의 상시 관리로 고창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관리 인력지원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